

폭염 사투 노인들 '안타까운 죽음'

양동시장 손수레 장사 할아버지 횡단보도 건너다 교통사고 사망 원룸·주택 등 노인 잇따라 숨져 생계 위해 피약별 아래 거리로 취약계층 위한 구체적 대책 필요



생계를 위해 일하는 노인들에게 폭염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주위의 무관심이다. 최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한 노인이 폐지를 줍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기초생활수급자 천모(75)씨는 낮최고 기온 34도를 찍었던 지난 25일 장사를 위해 길을 나섰다. 생계만은 스스로 돈 벌어 꾸려야겠다는 결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숨이 턱 막히고 현기증을 일으키게 하는 피약별도 그의 길을 막아 서지 못했다.

하지만, '이날'이 결혼도 않고 홀로 살아 온 고단한 생의 마지막이 됐다. 오후 2시 5분께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 인근 횡단보도에서 양동시장쪽으로 길을 건너던 25t 트레일러에 뒷바퀴에 치여 숨진 것이다.

천씨는 10여년 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혼자 살아왔다. 두 달전 서구 관천동에 살 집을 구했지만, 이전까지는 집이 없어 빈집과 폐가 등을 전전했다. 노숙이나 다름 없는 생활을 해왔다.

천씨는 관절염 등을 앓고 있어 거동이 불편했지만 조그마한 손수레에 땅콩 등 견과류를 담아 양동시장에서 팔면서 겨우 생계를 유지했다. 유일한 혈육인 남동생이 있었지만 오래 전 연락을 끊고 지냈다. 경찰이 수소탄 끝에 남동생을 찾아내 천씨의 장례는 동생이 치부하기로 했다.

천씨가 숨진 날 광주시 북구의 한 원룸에서는 70대 남성이 숨져있는 것을 옆 집 주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이 남성은 옷을 벗고 있었으며, 바람이 통하도록 현관문을 조금 열어둔 상태였

다. 지난 24일 오후에도 북구에서 60대 여성이 자택 의자에 앉아 숨진 채 발견됐다. 집 안에는 선풍기가 켜져 있었으나, 창문 등이 모두 닫혀 있어 실내온도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모두 폭염이 직접적 사인은 아니지만, 최근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에 건강이 악화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특히 광주(지난 4월 기준)에서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이 무려 780명

에 달해 관심이 절실하다. 이들은 더위를 피할 새 없어 생계를 위해 도로에서 리어카를 끌고 있다.

이처럼 취약계층이 폭염에 고통받고 있어 얼음, 생수 등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폭염에 열대야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이달 들어 광주·전남에 온열질환자가 152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취약계층이나 노약자들이다.

26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온열질환 감시체계가 시작된 지난 5월 20일부터 지

난 25일까지 신고된 온열환자는 광주 46명, 전남 132명으로 총 178명이다. 전국적으로는 1644명의 온열환자가 발생해 18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허락 전남대학교 응급의학과 교수는 "노인 등 취약 계층은 하루 중 무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야외 작업을 피해야 한다"며 "특히 노인 뿐 아니라 심장질환·당뇨·피부질환·감상선 질환자와 고혈압·갑상선을 복용하는 환자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희 기자 young@kwangju.co.kr

지하수 배관 불...폭염 때문?

26일 오후 4시께 고흥군 도덕면 한 도로 옆 숲에 설치된 지하수 배관에서 불이 났다.

인근을 지나던 주민은 "연기가 심하게 나 물을 부었는데도 안쪽에서 계속 연기가 난다. 바로 뒤편에 산이 있어 불이 번질 위험이 있다"며 119 종합상황실에 신고했다.

다행히 불은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바로 진화했다.

플라스틱 소재의 배관은 불이 잘 붙지 않는 소재로, 현장에서 담배꽂초 등을 비롯한 인화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자연 발화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폭염 속 4세 여아 방치 숨지게 한 교사·운전기사 구속

폭염 속에서 4세 여자 어린이를 통원차량 안에 7시간 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해당 어린이집 인솔교사와 운전기사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김주경 영장전담판사는 26일 인솔교사 구모(여·28)씨와 통원차량 운전기사 송모(61)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신문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7일 오후 4시 50분께 경기도 동두천시내 P어린이집 통원차량 안에서 김모(4)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김양은 차에서 미처 내리지 못하고 3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7시간가량 갇혀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구씨와 송씨를 비롯해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담당 교사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였다.

사망사고 책임이 큰 구씨와 송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책임이 비교적 작다고 판단한 원장과 담당 교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구씨는 "하차 과정에서 다른 어린이들이 울음을 터뜨리는 등 정신이 없어 차 뒤에 타고 있던 김양을 챙기지 못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송씨는 "평소에도 하차 후 차량 뒤편은 확인하지 않았고 아이들 하차 지도는 인솔교사가 담당해 왔다"고 경찰에 말했다.

/연합뉴스

교비 횡령 전 청암대 총장

1년6월 실형 확정

교비 14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71) 전 청암대 총장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6일 특정범죄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판결을 확정했다.

강 전 총장은 2005년 7월부터 2012년 8월까지 명목에도 없는 업무추진비를 지급받는 등 방식으로 교비 14억원을 빼돌려 대학 재정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강 전 총장의 배임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라고 보고 징역 1년6월로 감형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야생초 편지' 저자 황대권씨 간첩죄 벗나

'구미유학생 간첩단' 오늘 재심 3차 공판

영광 거주... "고문 주제 글 쓸 것"

'야생초 편지'의 저자 황대권(63·사진)씨가 조작된 간첩죄를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는 대표적 안기부 조작사건인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86년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13년 2개월을 복역했다.

수감생활에서 편지, 일기 등을 묶어 쓴 '야생초 편지'로 대중에게 친숙하다. 현재 영광에 등지를 틀고 반핵 활동 등을 하고 있으며, 생명평화마을 대표를 맡는 등 대한 공동체를 꾸리고 있다.

황씨 등은 최근 조작된 혐의를 벗기 위해 재심을 신청,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에서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황씨 등은 "안기부 수사관들의 강제연행과 구금행위는 불법 체포 및 불법감금에 해당한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고 있다. 27일에는 재심 3차 공판이 열린다.

그는 "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고문과 가혹행위로 만들어진 조작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재심을 청구했다"며 "무죄가 밝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실을 바로 잡는 게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안전기획부는 지난 1985년 국가안전기획부가 미국과 서독

등에서 유학하던 황씨 등이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국내에 들어와서 간첩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구미유학생 간첩단'이다. 이 사건에는 최연소비전향 장기수인 강용주 전 트라우마센터장도 말려들어 14년간 옥살이를 했다.

하지만,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은 고문과 조작을 통해 낱조한 진실이라는 게 드러났다.

황씨는 조사과정에서 조사관들이 무릎 꿇게 한 뒤 팔과 무릎 사이에 각목을 끼우고 코에 물을 들이붓는 '비너꽃기' 고문, 물고문 등 고초를 겪었다.

그는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전문잡지 '예향'과 인터뷰에서 '잔혹한 고문과 그 트라우마를 글로 쓰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데이트 폭행치사' 30대 징역 12년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정아 부장판사)는 26일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무엇보다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지만 가해자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고가 유가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용서를 받기 위한 실질적 노력도 없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새벽 4시 50분께 광양시 한 도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애인인 B(여·33)씨를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와 헤어지는 문제로 말다툼하다 폭행을 했으며 범행 뒤 경찰에 자수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공사소음 양심 품고 공구 훔친 40대 '낮에 잠을 못자서'



○...40대 남성이 집 인근 공사장 소음에 양심을 품고 인부들이 퇴근한 이후 공사장에 들어가 소음을 유발하는 공구만 훔쳐 갔다가 경찰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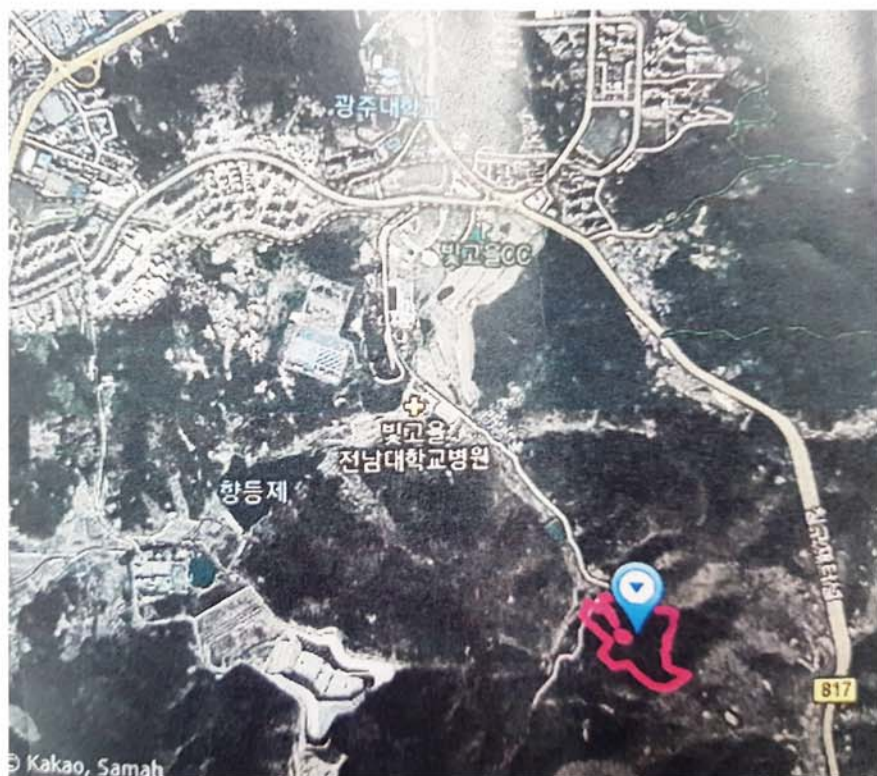
○...26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광주시 서구 농성동에 사는 김모(47)씨는 지난 10일 밤 10시50분께 자신의 집 인근 건물 인테리어 공사현장에 몰래 들어가 해머드릴 등 공구 2개(60만원 상당)

를 몰래 가져갔다는 것.

○...수사에 나선 경찰은 공사장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김씨를 붙잡았는데, 경찰 조사에서 그는 "야간 근무를 해서 낮에는 잠을 꼭 자야 하는데 공사 소음 때문에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화김에 공구를 훔친 것은 사실이나 어디에 처분하지도 않고 집에 잘 보관해 뒀다"며 선처를 호소.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55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2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되고 있음(산64-21번지)
 - 매매 - 평당 17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